



김이교 유물 일괄 (金履喬 遺物 一括)

- 지정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10-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876년 개항 이전 조선시대 일본과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진 교환 사절이었던 1811년 신미 조선통신사의 정사(正使)를 지내고 후에 우의정에 오른 김이교(金履喬, 1764~1832)의 유물이다.

김이교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할아버지는 대사간 시찬(時燾)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방행(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璜)의 딸이다.

1789년(정조 13)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김열·수찬(修撰)·초계문신(抄啓文臣)·북평사(北評事)를 거쳐, 1800년 겸문학(兼文學)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순조가 즉위하고 대왕대비 김씨(영조의 계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僻派)가 정권을 잡고 시파(時派)를 탄압하였다. 이 때 시파로서 벽파에 의해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당하고 동생 이재(履載)도 전라남도 고금도에 안치되었다.

1806년(순조 6) 부사과(副司果)의 직첩을 환수받고 동부승지·이조참의·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810년 10월 10일 일본 통신사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호조판서 심상규(沈象圭)를 탄핵하다가 체포되고 통신사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에 다시 통신사로 재임명되었다. 1811년 2월 대마도에서 국서를 전달하였으며, 이듬해에도 대마도에 건너가서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 뒤 대사성·대사헌·도승지·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이조판서·평안도 관찰사·병조판서·형조판서·공조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31년 우의정에 올랐는데, 이때 영의정과 좌의정이 모두 공식이어서 한 때 국정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순조·보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에 『죽리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김이교가 통신사 정사로 사행하면서 작성된 '신미통신일록'과 인장, 그리고 김이교와 관련한 호패, 교지, 교서 등의 유물 20점은 사료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2013년 4월 22일 문화재로 지정되었다.